

## 제1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5. 7(목), 15:00~16:1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유승익, 오상탁, 이화숙, 최인규, 김찬영, 이해진, 박상호 평의원 (이중환 간사)

- 불참 평의원 : 유승화, 박윤규, 김관균 평의원

### 4. 회의안건

#### 가. 보고사항

- 제1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결과 주요사항
- 학칙개정 보고

#### 나. 의안(자문)

- 200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 다. 주요 현안 보고 및 청취

- 학교기금 Fund 투자에 대한 추가설명
- 병원의 지하상가 등 수익업체에 대한 운영주체(법인, 의료원)에 대한 설명

#### 라. 논의사항

- 박종구 전 교과부차관의 특별채용 및 부총장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평의위원회 입장 정리: 성명서 발표 등
- 학사운영 관련 총학생회(안)에 대한 논의(총학생회 안건)

###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기금 Fund 투자에 대한 추가 설명은 잠시 후 총무처장께서 200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 및 부총장 임명 진

< 간서명 란 >

의 장



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향후 재발방지 논의 전에 대해서는 이사장, 총장, 박종구 부총장께 제12차 회의록을 첨부하여 5월 7일 이전 까지 교수회, 학생회, 직원노조지부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2009.4.29)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발송한 공문은 2009년 5월 4일에 기획팀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대학평의위원회가 법인 이사장께 보낸 공문을 접수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누구로부터 받으신 것입니까? 공문의 수신자 리스트에 보면 총장님도 계시고 박종구 전 차관도 계십니다. 두 분께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공문을 접수하신 것입니까? 접수하셨다면 두 분께서라도 회신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알기로는 접수하였습니다. 총장님과 박종구 부총장은 접수를 했고, 실제로 총장님은 이미 교수서신을 보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전 교수서신 나온 다음에 보낸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지만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을 답변으로 저희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입장표명이 있으셨으니까, 그 후에 보낸 이번의 대학평의위원회 공문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교수서신을 보내신 건지

부의장 이원희 : 그 후에 항의방문을 해서 본인이 구두로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것은 서신 후에 간 공문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총장님께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부총장님도 의장님이 방문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따로 공문을 안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 방문도 우리가 공문발송하기 전에 방문했습니다. 공문을 받고 나서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방문했고 박종구 전 차관이 총장서신에 다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공식적인 회신인지에 대한 것은 여쭙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 공문은 지난번 평의원회를 하면서 교내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진전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논의를 해서 문구도 다 수정하고 회신 기일도 5월 7일까지로 정해서 보낸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한 교내사태 해결을 모색하라는 취지에서 오늘 예정된 평의원회 전까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드린 건데, 회신 날짜까지 명시된 공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결국 대학평의원회의 권유를 수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처럼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열릴 때 외에는 의견을 표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사장, 총장, 박 전 차관계서 공문의 접수조차 거부하거나 일체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은 대학평의원회의 교내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4월 28일에 공문이 발송되고 5월 7일까지 답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내사태가 얼마나 심각하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의원들이 공식적인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협의해서 회신날짜까지 정해서 드린 공문에 답이 없다면, 오늘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그 근거 위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좀 더 달라’ 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셨으면 별 문제이지만, 지금은 답이 없으신 게 하나의 굉장히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드려집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총장님은 교수서신에 이미 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미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전한 걸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언제쯤이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지난번 처장회의였습니다.

간사 이중환 :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지난주 목요일이면 4.30일 맞습니까?

간사 이중환 : 지난 주 12차 회의하고 그 다음 처장회의였기 때문에 목요일이 맞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처장회의 때 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장님은 알

< 간서명 란 >

의 장



고 계십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아주대학교 정관에도 나와 있는 법적기구입니다. 법적기구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신을 구두로 그것도 본인이 직접 의장님께도 아니고 전언으로 보내시는 건 평의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의 단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평의원회가 공문을 보내는 전 일말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실제로 항의 방문하셔서 총장님 말씀도 들으셨고, 그것에 대하여 항의방문 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항의방문은 교수회에서 하신 거고 이 자리는 대학평의원회입니다. 학생평의원들, 직원평의원들, 외부평의원들은 무슨 사유로 항의방문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시는데, 그 항의 방문이 대학평의원회의 공문에 대한 회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신 말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대신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도대체 공문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듣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니, 교수님들께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총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학생평의원들한테는 답을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인가요? 직원 평의원들한테는 답을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의장 이일영 : 총장서신은 대학평의원회가 공문을 보내기 전 얘기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물론 교수서신이 그 전에 갔지만 실제로 평의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했을 때 총장님께서서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소신을 밝혔고 교수 서신을 통해서 다 밝힌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것에 대한 답을 대신하느냐 평의원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총장님께 여쭙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대학평의원회의 공문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법인 담장자의 말이 법인의견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 접수조차도 거절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려고 해도 나중에 가서 이사장께서 또는 법인에서 '우린 몰랐다' 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

< 간서명 란 >

의 장 

도 바로 옆방인 법인 사무실에 가서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실제로 모든 일이 구두로 가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말입니다.

의장 이일영 : 우리가 말이죠. 지금 평의원회의를 13차까지 모이는데, 그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무엇 하러 모이느냐.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쓰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저 쪽에서 문전박대를 받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라면 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고, 우리 교수들이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만나고, 학생들도 수업 빠지고 오고 무엇 하러 이걸 모이느냐 이겁니다. 학교가 평의원회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왜 모입니까? 나 스스로도 정말 이런 식의 모임은 별로 모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문을 한다고 해도 자문이 어느 정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이래야지, 매번 와서 많은 시간을 쓰고 열성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회의록을 만드는데 그걸 집어 던지고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요식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 했지만 모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입니까? 무슨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으려면 허수아비들 갖다 놓고 땡땡땡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이원희 : 잠깐 진행과 관련해서 우선 fact만 정리하고 다른 평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장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낸 것은 4.1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회의라고 하는 12차 회의에 박상호 평의원님은 사정상 못 오셨죠. 그때가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이러이러한 것을 3인을 수신자로 해서 보내자 라고 해서 회의록 정리해서 보낸 게 4월 29일입니다. 기획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날 처장회의 때 보고했다. 맞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부의장 이원희 :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교수회의에서 항의방문 한 게 같은 날 4월 30일 오후입니다. 그럼 처장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부의장 이원희 : 오전에는 처장회의, 오후에는 교수회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직원으로부터 대학평의원회 공

< 간서명 란 >

의 장



문을 못 받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리고 총장님은 월요일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지금도 나가계십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예

부의장 이원희 : 저는 하여튼 사실관계를 그렇게 정리했고, 다른 평의원께서 이 정리 내용에 따라 의견을 내서 회의를 더 진행할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말씀들 하십시오.

평의원 최인규 : 총학생회에서 성명서를 썼습니다. 이 사태가 잘못되었다 옳다 그르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학생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신 주요 보직을 가지고 계신 학장님과 처장님 한 분께서 보직사임을 하신 사태를 보고 나서 이 사태에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용을 알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각 관련 부서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사항이 있었고 공개질의서 이후에 전혀 답변이 없어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응하는 것과 이러한 사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성명서를 냈는데, 학생들에 대한 성명서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전혀 오지 않았고 실제로 학생처를 통해서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고 나면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정리만 하고 있는 중인데, 진상조사 결과보고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알게 된 그리고 대학평의회 결국 와서 보게 된 이런 결과들도 봤고 교수서신을 받았던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 쪽에서도 분명히 입장표명을 좀 했고 알고 싶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전혀 서신이나 이런 것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학생들을 위해 일하시는 교수님들이 사임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저희도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답답합니다.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평의회에서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있겠지 라는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매번 대학평의회 마다 수업도 빠지고 시험도 못 치러 가면서 들어오는 회의에서 발전적인 토론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답변 그리고 계속 다음 차

< 간서명 란 >

의 장



로 이루어지는 답변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하면 학생들에게도 꼭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분 말씀해주십시오.

평의원 박상호 : 부총장님 특별채용이 아주대 전 교수들 임명 기준이나 절차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는 왜 그렇게 임명을 하셨는지 그걸 해명해 달래도 아무 얘기가 없다. 어쨌든 간에 절차를 어겼든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임명을 했든 무언가 해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옳은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명을 했는데 우리 평의회에서 보니까 이진 아니다 그러면 그때 평의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법은 교수회나 이런 데서 논의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이진 자문안전이 아닙니다. 부총장님에 관한 문제는 심의 안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평의회 안전이 아니고 그냥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심의안전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회가 보낸 공문의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박 전차관의 교수 특별임용과 부총장 임명 건’ 도 있지만, 결산과 관련된 ‘교비 136억 원의 사용과 위험성 투자’ 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의장 이일영 : 공문 내용은 지난번 우리가 평의회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두 번째 사안은 오늘 결산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평의회 공문을 묵살하면 대학평의회도 어렵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결국은 재단이 의료원 빚 313억을 다 갚았어요. 교비에서 빠져나간 돈 이런 것은 갚지 않고 의료원돈 313억은 갚았어요. 금년도에 다 갚았는데 실제로 갚은 내역이 문제입니다. 그 내막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의료원 지하상가는 완전히 재단이 장악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재단을 거쳐 다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원의 돈을 가지고 다시 재단이 전입해주는 것 같이 해서 갚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 간서명 란 >

의 장



일 중요한 것은 313억의 빚을 병원에 떠넘길 때, 학교도 교비에서 78억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갚아야죠. 교비에서 나간 돈인데. 사실 78억원은 빼고 나머지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 있는 대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평의원회가 공문을 보낸 건데, 문전박대를 했다, 대답도 없고 공문을 접수도 안한다, 이렇게 했다면 대학평의원회가 지금 모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의견을 내는 건 뭐 하지만, 의장으로서 나 스스로도 왜 대학평의원회를 해야 하는지, 의미 없는 모임이라면 엄청난 시간을 써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사용된 명목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토지가 어쨌든 학교가 만일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토지가 누구 소유가 되는가? 재단소유가 됩니다. 법인소유가 되는데, 교비에 분명히 포함된 건 학생들 등록금입니다. 분명히 포함된 교비로서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잘 살펴보면 아시듯이 재단 사정이 나아지면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속을 부탁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을 검토해보겠다고 아닌 구두로 이야기했겠지만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하면 다음 차까지 1주 혹은 2주 시간이 걸리면 또 늦어지는 거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반드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 확실하게 이 공문을 받지 않겠다 라고 재단에서 서면으로 혹은 이행을 하면 추후에 행동방향을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러니까 그것을 재단이 항상... 지금까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문을 봤는데 접수를 안 했으면 접수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까지 또 해본들 저희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의원 오상탁 : 4월 30일 교수회에서 항의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평의원들은 상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 박종구 전 차관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에 항의하는 뜻으로 김철환 교수가 사임한 기초교육대학장 자리에 이 사태의 가장 중심인물인 이승

< 간서명 란 >

의 장





호 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총장께서 정말 판단을 잘못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이 거기다 밀어 넣으라고 압력을 넣은 건지, 내막을 좀 알자 해서 갔었습니다. 총장께서는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새롭게 한다든지 잘못된 액션을 철회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그냥 항의에서 끝난...

의장 이일영 : 교수들은 항의하고, 총장께서는 인정은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총장께서 바빠서 일어서야 한다고 한 5시까지, 2시간가량 우리와 만났습니다. 항의방문 했던 8명의 교수는 거의 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얘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물론 박종구 전 차관의 얘기도 나왔는데, 박종구 전차관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이사장이 반려해버리고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이해진 위원이 지금 오셨으니, 회의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지난번 평의원회에서 2가지 결의(resolution)를 해서 세분한테 보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고 재단 쪽에서는 아예 접수도 안하고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접수도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평의원회란 것이 이렇게 모여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는 모임이나 한번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래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교수들 중에 의견을 몇 분 말씀하셨고 외부 평의원이신 박상호 교장선생님도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절차에 관한 건데 절차를 따라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었고, 학생대표는 학생 쪽에서 성명서를 내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해서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 있었고, 그 사이에 경과 과정과 관련지어서 다시 정리가 됩시다만 4월 23일에 1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 주에 교수들한테 총장이 공식적인 서안을 보냈으며 거기에 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30일 항의방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초교육대학장을 그만둔 그 자리를 기초교육대학장이 그만두게 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교육대학원장 이

< 간서명 란 >

의 장



승호 교수인데 이승호 교수를 교육대원장과 기초교육대학장 겸임발령 낸 것입니다. 이전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잘못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다가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의장 이일영 : ‘돌이켜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액션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며,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그거 받진 않았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게 지난 4월 30일 교수회가 항의 방문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보고사항 본문 첫 페이지에 있는 가-2)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꼬트머리에 보면 5월 4일 대우학원에서 공문반송이란 얘기가 결국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접수 거부한다고 팀장 밑에 있는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받는다 그게 5월 4일이고, 오늘 5월 7일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박상호 : 그럼 답을 안주시고 공문을 접수조차 거부를 하셨다면, 평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아까 박상호 평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의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 피력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학교에 대해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의견을 내는 기구로써,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의견이 다른 쪽들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게 기한을 2주 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정당한 길을 찾으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 공문조차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이 더 옳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도록 대학평의원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할 일이 결산 심의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문의 첫 번째 항목을 보면 교육과 연구에 쓰여야 할 교비가 다른데 잘못 쓰였다는 질의를 하곤, 하지만 재단의 형편을 이해하니까 언제 형편이 퍼지시면 좀 갚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도 거부하시면, 그럼 대학평의원회가 어떻게 결산자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을 교육과 대학발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 결산이 제대로

< 간서명 란 >

의 장



되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김찬영 전학생회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학생회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펀드문제도 지난번에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교비가 쓰인 것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미래비전을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지 공문도 접수 못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의원 김찬영 :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평의회에서 중요한 안전이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대표가 1명인걸 부당하다고 계속 지적하여 결국 2명이 되었습니다. 제 상식으로 공문반송이라는 의미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학생대표로서 후배들이 더 들어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에 대한 전달과 공문의 서신교류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하는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평의회 공문을 저희는 지난회의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항의방문 하신 내용도 교수님 차원에서 하신 거라 저희는 당연히 모르고 있는 내용이지만, 평의회라 하면 학생대표들도 있고 직원대표들도 있고 외부 동문선배님도 계시는데 공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다 한들 공문이 언제 전달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저희도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적어가면서 날짜를 자꾸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의회에서 나가는 공문날짜랑 총장님 서신 내용이랑... 제가 지난번 이순일 교수님께 말씀 드렸듯이 지난번 회의에 대한 답변에 관한 대답을 좀 보고 주위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 숨길 길이 없습니다. 공문에 대한 1번 부분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단이 대답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저도 그냥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제가 보니까 아직 의견을 구체적 제시하지 않으신 분도 한 두 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의견 제시한 분들을 모아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의 회의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발언으로 그 안전을 올려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했으면 좋겠고, 늦게 오셔서 더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이해진의원이나 아직 의견 제시하지 않은 분들도 의견

< 간서명 란 >

의 장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대할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화숙 : 저는 직원회 대표입니다. 저희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모아진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언로인데 서로 언로가 지금 차단되어있고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서로 속만 답답하고 이대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에서 총장님, 이사장, 박 전 차관께 보내는 문구는 누가 작성합니까?

의장 이일영 : 지난주에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런 내용도 사실은 공동명의로 평의원 명의로 발송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구나 이런 걸 서로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 기억에는 이것들은 전부다 회의록에 있는 문구들 거의 그 대로입니다. 지금 회의록을 갖다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것은 제가 보니까 수신처도 총장 보다는 이사장이 앞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드리느라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상호 의원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의원회 의견이 접수거부 당했다 이것이 주 안전인가요?

의장 이일영 :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접수거부란 부분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절차상의 부분은 특별채용이란 부분 같은데 특별채용의 절차가 보통 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네, 필요하시면 지금 규정을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정으로 다 명시되어있는데 명시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의장 이일영 : 지난번에 거기 다 첨부했었죠.

평의원 이순일 :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필요하시면 띄워서 보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지난번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제의 전문가라는 용어를 납득하는가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특별채용을 박전차관께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간서명 란 >

의 장



분으로 저희가 모두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가,나,다,라 안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안에도 없는 안으로 정교수가 되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의장 이일영 : 그것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가,나,다,라 중 어느 쪽으로 갔던지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수공이 가는데 거기가 짝 없어지고 그냥 정교수로 채용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아주대학교의 전 교수였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딱 짚어서 저희가 의견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이일영 : 무슨 의견을?

평의원 이해진 : 가,나,다,라 중 택하자. 절차대로 보니까 4가지 안 중에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의장 이일영 : 사실 평의원회에서 그런 안을 내는 건 아니죠. 우리는 개선해라만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평의원 이해진 : 지금 말씀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말씀이 이미 재단쪽에서는 결정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협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특별채용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교수협의회에서 말씀 하셨듯이 가,나,다,라 안 중에서 어떤 안이나 그 부분이 합리적이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면 굳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사실은 재단에서 재고해달라는 것이 평의원회의 바람이겠죠. 지금 의장님의 말씀은 거꾸로 재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라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하는 이런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지난번에 총장 항의방문 이라는 걸 했는데 총장이 나중에 resolution 안으로 어떤 얘길 하나면 박 전 차관이 정년보장 교수직을 그만두고, 총장이 사과를 하고, 이사장이 사과를 하고 그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것도 이사장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그런 식의 토를 달았어요. 총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본인이

< 간서명 란 >

의 장



아마 그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히 잘못된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답은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공문을 반려하고, 회신을 피하고, 이미 쏟아진 물이니까 너희들이 감수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무책임 하다 이겁니다.

평의원 박상호 : 어차피 지금 접수를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신 거니까 저희가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회의를 하셔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하반기로 돌리고 오늘 안전이 결산(안)이기 때문에 모인 것 같은데 결산안을 자문하실 건지 안하실건지 결정하시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애길 해도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다 치우고 결산(안)으로 넘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종료하고, 다음에 한번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 다시 모일 것이냐 둘 중 하나일 것 입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시면 얘기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 하나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평의원 최인규 : 우선은 중요한 게 결산(안)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총무처장님께서 오셔서 이야기 하셨던 펀드 관련 설명을 추가로 설명 듣지 않고서는 결산(안) 관련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관련해서 지난주에 논의된 것처럼 투자된 금액, 예를 들어서 200억이 투자 되었을 때 결산(안)에 200억으로 기재되어있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가야지만 우리가 결산(안) 첫 페이지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오늘 추가 설명 해주신다고...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만족스러운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는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fund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만 듣자?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최인규 :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 결산(안)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그것을 듣는 쪽으로 하자?

평의원 최인규 : 네, 결산을 하려면 그 부분을 듣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답을 받을 때 까지 미루고, 답을 받은 다음에 펀드에 대한 얘기, 결산에 대한 얘길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학생 대표를 늘리는 것 때문에 석달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둘 중 하나로 결정합시다. 다음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평의원회를 미루는 안과, 결산(안)자문을 오늘 진행하고 다른 문제들은 나중에 의논하자는 안 두 가지입니다. 다른 안이 또 있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제 생각에는 평의원회가 학교 전반적인 행정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행해 줘야 할 건 진행 해 주고 그리고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학교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간사 이중한 : 예, 곧, 결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5월말까지 교과부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초과해서 제출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처리 하되 명쾌히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히 답변을 듣고...

의장 이일영 : 그러니까 하자는 말씀이군요. 오늘 다 처리하자.

평의원 이해진 : 지금 예결산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평의원 이순일 :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진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총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다면 들을 수는 있겠지요. 고민 되는 것은 저희가 보낸 공문의 첫 항목에 대해 이미 몇 년 동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비를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나 토지대금을 대납하는데 써 왔는데, 올해 결산(안)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 지난번 회의에서 편

< 간서명 란 >

의 장



드문제가 나오는데, 결산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투자자산이 하나도 명기되어있지 않습니다. 총무처장님이 들어와서 설명해 주셔도 200억원이 현재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때 장부기재를 투자원금으로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런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게 사학의 관행이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적절한 결산이라 자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진위원이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순히 시한을 맞추기 위해, 문제가 있는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으니까 결산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결산보고 기한이 있다는 점을 이사장과 총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 결산이 지연되어 패널티를 받기 전에 평의회에서 결산(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우리 학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자문이 흔쾌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 맞닥뜨리면 정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주실 의향이 분명히 제시할 때 결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자문이라는게 승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장님과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피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평의위원회가 결산보고를 받아봤더니 ‘이 결산(안)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자문이니깐 그런 의견을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것도 자문의견으로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데 부적절하지 않다 라고 자문을 하는건 이상하죠.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 했다고 자문의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자문 의견을 내도 무시해 버릴 거면, 그런 자문을 무엇 하려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자문에 따라 개선을 하고 해야 우리가 자문을

< 간서명 란 >

의 장





하는 거지, 자문을 했는데 너희들 잘해봐라, 우리는 우리 하는 대로 하겠다 하면 그게 무슨 자문이나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을 써가면서 결산자문을 한다고 여기에 앉아 있냐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맞습니다. 근데 자문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반영 못하는 것은 반영 못 하는거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우려인데, 결국 대학평의원회의 결산자문은 사실 요식행위라는 의중을 말씀하신 거라고 제 귀에는 들립니다. 당신들이 뭐라 그러던 상관없이 우리는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 중요하다는 식이라면, 저는 그런 요식행위 자리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것을 행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하는 부서는 무조건 다 100% 순종해서 받습니까? 그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맞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합니다. 자문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문을 하면 무조건 다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면 평의원회 얘기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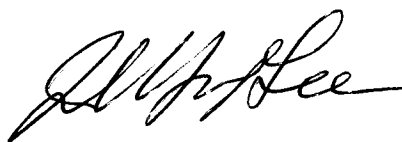
부의장 이원희 : 이 회의 참석할 때, 이미 이순일 교수는 지난번에 4시 넘으면 다른 행사 때문에 일어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발언이 아까 끊겼습니다. 아까 최인규 의원 얘기는 총무처장 답변을 들어보고 결산 자문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자 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앞에 나왔던 의견 중에는 그것도 현재로서는 받기가 곤란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해진 평의원은 그것이 어느 쪽으로 위치될지 모르는데 되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가운데서 이순일 평의원 나가기 전에 결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결하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로 결정합시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한 분!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자 하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평의원 김찬영 : 회의를 종료하자구요?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네

평의원 김찬영 : 결산(안) 부분만 검토를 안 하자는 그런 의미...

의장 이일영: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 하자는 것입니다. 회의를 종결하자는 분들 정확히 손들어 주세요. 한 분은 기권이고 한 분은 하시자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럼 책임 있는 답변이 오면 그때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결산자문을 하는 걸로 하고, 투자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책임 있는 답변이란 것이, 공문에 대한 답 말씀 하시는 겁니까? 공문에 대한 답을 재단이 책임 있는 답을 성실히 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의원 이순일 : 아까 박상호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결정을 내려 답을 주지는 못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혹은 같이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대학평의원회의 요청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냉각기를 갖는 동안에 다음 대학평의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평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게 뭔지는 처장님도 아실 겁니다. Fund 문제, 교비가 잘못 쓰이는 문제, 기타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대학평의원회가 신뢰를 갖고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정비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월요일 날 출장을 가셨으니까. 총장님이 아마 답을 주시는 것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 제 추측입니다. 박종구 부총장은 본인 얘기를 본인이 뭘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부총장에 관한 문제라든가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럼 이리이러해서 답을 못하겠다는 걸 우리한테 보내야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도 안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런 걸 미리 짐작하고 일을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다 spoil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전 한마디도 한적 없고, 직접 가서 얘길 하시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모이셔도 총장님이 아마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로서는 보면 추측이 없어도 또 그렇게 회의를 하셔야될지도 모른다는...

평의원 이순일 :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진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교과부로부터 패널티 받는 걸 모두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아주대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실 책임이 있는 분이 이사장님입니다. 유형적으로든 무형적으로든 아주대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나서 주셔야 하는 분이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은 거꾸로 이사장님은 대학평의원회에 답을 안 할 테니까, 해결책은 무조건 당신들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들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양보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패널티라는게 뭐냐, 패널티를 먹을 거냐 안먹을 거냐 그것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권은 이사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패널티 문제는 이사장께 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실제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패널티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단은 정확하게 못 내리겠는데 또 한 가지 패널티는 이런 겁니다. 패널티가 뭔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정제재를 받아서 패널티를 먹으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에 대부분에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렇게 중요하니까, 패널티 안 먹도록 이사장께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평의원 최인규 : 저도 학생대표 입장인데, 저도 아주대학교 학생이고, 졸업하면 평생 아주대학교 이름 평생 달고 살 거잖아요. 저 역시 패널티 받는 부분이 위험한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통씩 하든지 아니면 제가 고민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부의장 이원희 : 진행발언입니다. 옆방인데 지금 시간 되는 사람은 갑시다. 갈 수 있으면 갑시다. 화요일, 목요일 있으니까 다 같이 가서 의견을 얘기 합시다.

의장 이일영 : 지금 가도 됩니다.

부의장 이원희 : 지금 가면 됩니다.

평의원 최인규 : 같이 정리를 하고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는...

평의원 이해진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순일 교수님 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완전 양쪽으로 갈려서 생각들을 하세요. 똑같은 말 씀을 하셔도 중도적인 입장의 그런 게 있을법한데 서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극단적이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해진 의원께서 늘 중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지금 평의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완전무결한 완벽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성의 있는 내용으로 임해주셔 야지 여기서 논의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 여기 서 학교를 제일 걱정해야 할 사람은 누구다. 누구니까 너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냉각기를 갖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로 좀 생각 할 기회를 갖자는 거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주 대학의 구성원, 아주대학 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한사람도 없지 않다. 모 두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서로 협의를 해나가 는 과정이지 저희는 평의원회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학교 측에서도 조금 여기 있는, 저는 이 공문을 접 수를 안했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진 너희들 하겠다면 해봐라 라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갖고 는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평의원 유승익 :저는 좌우간 평의원 1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편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이해진 평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학내에 뜨겁고 지금 이 상황에서 평의원회의가 끝났을 때 다음번 회의가 걱정이 됩 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라고 하면 평의회 의원들 간에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 당국하고 접촉도 하고 평의원들끼리 의견도 모

< 간서명 란 >

의 장



오고 우리 박상호 평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못 나오셨고, 따라서 오늘 오셔서 평의회 분위기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 평의원회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일영 : 여기서 강요를 할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합시다. 하여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간서명 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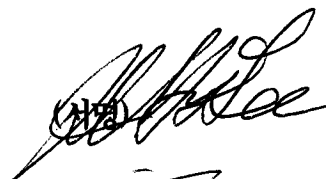
의 장



2009년 05월 07일

의 장 이 일 영

(서명)



부 의 장 이 원 희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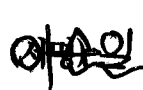


평 의 원 유 승 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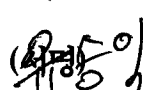
평 의 원 이 순 일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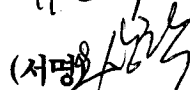
평 의 원 유 승 익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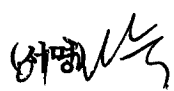
평 의 원 오 상 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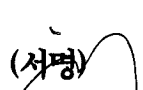
평 의 원 이 화 속

(서명)



평 의 원 최 인 규

(서명)



평 의 원 김 찬 영

(서명)

평 의 원 김 관 균

(서명)

평 의 원 이 해 진

(서명)

평 의 원 박 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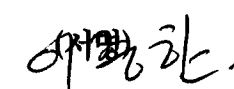
(서명)

평 의 원 박 윤 규

(서명)

간 사 이 중 한

(서명)



기 록 진 성 호